

윤석열 정권 1년은 MBC 탄압의 역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정권 1년.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장악하려는 정권 차원의 압박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무자비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외면했고, 특히 MBC는 철저히 탄압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MBC를 몰아붙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 하고 MBC에 대해 노골적인 저주의 주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MBC 탄압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여당 총동원

정권 초기부터 MBC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현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보도를 구실 삼아 탄압의 강도를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모든 언론이 ‘바이든’으로 보도했음에도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최초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뉴스로 몰아갔다. 국민의힘과 관련 단체들을 동원해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심지어 외교부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MBC 출입기자 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순방 이틀 전 밤에 문자로 이뤄진 일방 통보였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언론 폭압이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직접 MBC를 겨냥해 “악의적인 보도로 동맹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탑승 배제 이유를 밝혔지만, MBC의 비속어/욕설 보도에 대한 양자음이자 길들이기 목적임을 모를 국민은 없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스스로 ‘소통’의 상징으로 추켜세웠던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도 전면 중단했고, 지금까지 ‘불통’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자 정부 부처들은 마치 경쟁하듯 MBC 탄압에 나섰다. 국세청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5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MBC를 살살이 파헤쳤다. 국무조정실은 별안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나섰다. 특히 과거 언론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감사원은 관련단체가 주도한 국민감사청구를 구실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역시 MBC를 향한 겁박과 망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MBC, KBS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숨기지 않더니, 지난해 9월 MBC를 향한 방문한 자리에서는 돌연 “MBC 민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공식 석상에서 MBC 광고 불매를 압박했고, 김기현 대표는 ‘MBC 해체’까지 들먹였다. 수시로 MBC에 대한 망언을 반복하던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권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공영방송 이사진을 하나도 못 먹었다”고 말하더니, 지난달엔 “앞으로 3개월이 중대한 시점”이라며 공영방송 장악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MBC 장악 위해 ‘법치’도 실종

지난주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위원장을 면직 처리할 기세다. 방통위 설치법상 신분이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무리하게 면직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선 자격을 문제삼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지난 2008년 BBK 특검에서 함께 일했던 이상인 위원을 전격 임명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될 경우, 방통위원 중 야권 추천 인사는 단 1명만 남게 됐다. 법적 논란에도 이렇게 무리수를 거둬대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를 장악해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불순한 목적 탓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그래서 더 정치적이다. 적폐 시절 공영방송을 망가뜨렸던 이들이 주축이 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 부패방지권의 위법은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온전히 MBC의 경영 판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6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면서, 이와 전혀 상관없는 MBC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해 방문진을 통한 우회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어떻게든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MBC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 ‘언론의 자유’는 짓밟혔고, ‘법치’는 사라졌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하기에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자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 MBC 탄압 일지

- 2022.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영방송은 언론노조가 좌지우지"
- .09 국민의힘 등,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욕설 보도 관련 MBC 고소/고발
 - .09 국민의힘, MBC 집단 항의방문. 권성동 “MBC 민영화 필요” 발언
 - .10 고용노동부, MBC 노동관계법 관련 특별근로감독
 - .11 국세청, MBC 세무조사 520억원 추징금 부과
 - .11 대통령실,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 .11 윤석열 대통령 “MBC 가짜뉴스로 동맹 이간질, 악의적 행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 .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MBC 해체하는 게 사회 해악을 줄여”
 - .11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광고 불매’ 압박
 - .12 외교부, 윤 대통령 비속어/욕설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
 - 2023.01 국무조정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감찰 착수
 - .02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 국민감사 결정 (예비감사 진행 중)
 - .04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3개월이 미디어 전환의 중대 시점”

조합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소중히”

조은영 / 광주 편제

수습사원 딱지를 떼어 낸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조직에서의 ‘노동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회사 선배님들께서는 저와 같이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을 ‘새로 들어온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자는 피다’, 모든 인간의 생존을 위해 피가 필수적인 요소이듯, 회사 전체의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데 없이 중요한 존재가 ‘노동자’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결국 MBC라는 조직의 강한 생명력을 위해서는 그 안의 노동자 한명 한명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이러한 의미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내는 수많은 의견을, 더 활기찬 조직을 만드는 초석으로 여기며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옛된 신입사원이지만, 저 역시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한 명의 ‘새로운 피’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토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재홍 / 서울 편제

입사 이후 수많은 적응의 연속에 있었습니다. MBC라는 회사에, 회사 내부의 여러 부서에, 제가 속한 부서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적응의 과정마다 감사하게도 MBC라는 조직은 물심양면 힘써줬고, 덕분에 조직이 일궈놓은 토양에 저를 비롯한 신입사원들이 안착해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로부터 저희가 안착한 이 토양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선배들이 회사와 끊임없이 얘기해나간 덕분에 저희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오래, 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제작 환경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 숲을 키워나가고 토양을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권리 신장이 건강한 언론을 만든다”

전재웅 / 전주 보도

수습기자 석 달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알겠습니다”였습니다. 어쩌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여기에서 나온 선택일지 모릅니다.

가입하러 올라가는 길에 사무실 앞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언론’과 ‘노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사뭇 낯설었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과 선배와의 자리에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날 축소된 의미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력 제공 정도에 그쳐 돌의 무게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경제적 기반 없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다는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을 생각해 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공정 보도를 지키는 힘은 권력과 자본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언론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공정한 보도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명분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존을 넘어 자신을 긍정하는 노동”

은동훈 / 서울 기술

글을 쓰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마치 운명처럼 MBC에 입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마도 MBC의 자기소개 1번 문항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삶을 하나의 콘텐츠로 표현해 달라는 문항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개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빛나는 콘텐츠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대(對)OTT 시대에도 빛을 발하는 MBC만의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왜 MBC에 마치 운명처럼 이끌렸을까요? 그 이유는 노동을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싶지 않다고 늘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 그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노동을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을 때, 노동은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가 노동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긍정하는 노동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 향기를 전하는 조합”

변예주 / 대구 보도

안녕하십니까. 신입 조합원 변예주입니다.

새 가족으로서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 ‘사람’입니다.

기자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 기자이기에 들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현장에서 많은 언론인 선배님을 만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실을 가려낼 줄 아는 눈과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쉽게 사실을 전하는 방법과 기사에 필요한 지식도 쌓아갑니다.

이제는 조합원으로서 회사 안과 밖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에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만큼, 연차가 낮은 조합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자’는 저의 작은 좌우명이 조합과 MBC, 나아가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조합원으로 나란히 걸겠습니다”

백승우 / 서울 보도

아직 보도국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배우기도 급급한데,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어 인사를 드리려니 민망함이 앞섭니다. 이 짧은 분량의 글을 채우기에도 식견이 부족한데, 앞으로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선뜻 자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제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던 날과 비슷한 기분도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쫓아가기도 바빴습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어 어떻게든 기사가 나가게 도와주신 선배들을 보며, 이 선배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기자’라는 이름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지나온 길을 떠올리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옆에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회사, 그 안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존중받는 회사,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 MBC가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어서 우리 노동조합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신규 가입자

서울 지부

<보도> 이혜리, 구승은, 신준명, 박솔잎, 문다영, 김승우, 한지은, 송정훈, 백승우, 송서영, 이지은, 송재원, 변운재, 제은호
<편제> 권지수, 최철훈, 이지현, 현유석, 김솔, 박소영, 이한준, 심푸름, 김재연, 안재홍, 이규찬, 박소희, 강현욱
<기술> 강신혁, 최고은, 남윤아, 강채영, 은동훈, 강시현
<경영> 이정규, 이지민, 김예준
<영상디자인> 이동혁, 이민규, 홍혜인

광주 지부

김예원, 조은영, 오혜정, 유시창, 임원후

대구 지부

김용태, 변예주, 석상민, 허수경, 채지희

전주 지부

이주연, 전재웅, 조성우

강원영동 지부

김승환, 이은주

부산 지부

장성탁

목포 지부

김창준

경남 지부

이희연

울산 지부

이다은

조합이 힘이 되겠습니다

긴축 경영? 성장 비전부터 제시하라

안형준 사장이 취임한 지 약 80일이 지났다. 취임식이 진행된 지난 3월 17일 이후로 계산해도 50일 정도가 흐른 시점이다. 단체협약 50조 1항에 따르면, 사장은 선임 이후 1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참석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해 회사의 비전, 사업, 예산, 인사 원칙 등을 밝히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측은 정책발표회를 충실히 준비 중이라며 시기를 미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으로 위중한 시기, MBC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 경영진의 생각이 아직 공유되지 못한 점은 적지 않은 우려로 다가온다.

비용 절감 소문에 불안감 증폭

이런 가운데 사내에는 회사가 강도 높은 긴축 경영을 추진한다는 말들로 뒤숭숭하다.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광고, 유통 등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면서 올해 예상 실적을 다시 설정해보니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진다. 과거 적자를 기록했을 때 고려했던 긴축 방안들 중 가능한 모든 것을 다시 꺼내들어 시행한다는 게 새 경영진의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시기 조정, 홍보 비용 축소 등은 물론 매년 실시하던 직급 승진을 일부 보류하고, 신입사원 채용 중단도 검토 중이다.

실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문제 삼을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MBC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없이, ‘비상경영’, ‘긴축경영’이란 이름으로 마른 수건 짜기 식의 비용 절감만 떠돌면서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MBC 성장 비전은 무엇인가

그렇다보니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도대체 어떤 MBC의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은 실적 악화를 완화할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비용 절감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지, 콘텐츠 경쟁력은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방안을 내놓는 것이 경영진의 사명이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구성원의 기대였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경영진 아닌가.

현재까지 안형준 사장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공식적인 언급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평가단 발표, 최종면접 그리고 취임사가 전부다. 안 사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MBC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야구에 비유해 “적자가 무서워서 계속 번트를 댈 수만은 없다”며 “MBC의 미래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힘껏 스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기억하는 구성원들에게 현재 회사가 추진 중이라는 이른바 ‘긴축경영’은 적지 않은 괴리로 다가온다.

일방적 불이익은 받아들이 수 없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과 직급 승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조합은 강력히 반대한다. 채용은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 비전속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신중히 정할 대개이지, 한 해 적자나 흑자나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별다른 예외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직급 승진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구성원들이 유·무형적으로 받는 피해는 적지 않다. 요컨대, 조합은 MBC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장 비전에 대한 공유 없이 조합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긴축’, ‘비상’ 경영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특히나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안형준 사장과 경영진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MBC의 성장 비전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그 거시적인 비전속에서 현 시점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집중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긴축경영 방안은 이것이 선행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할 일이다.

“목표가 아닌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인식해야”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이렇게 활용하자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지난해 이맘때쯤 다양한 언론사의 현직 기자 4명과 PD 1명으로 구성된 ‘젠더보도 가이드 기획단’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사항은 “기자나 PD들이 취재·제작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과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이 있지만,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젠더 갈등과 구조적 성차별, 혐오 발언 등을 전달하기에 기존의 인권보도준칙 등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인하대 성폭행·사망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

력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도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명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계 전반에서 비판과 자성, 토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서울대 김수아 교수팀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작성하고, 기획단이 여러 차례 회의와 첨삭을 통해 취재 보도시 필요한 요소를 자문하는 방식으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언론보도와 성평등 체크리스트(13쪽),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어휘(22~23쪽),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시 쓰지 말아야 할 어휘(26쪽), 젠더 기반 폭력 취재 체크리스트(31쪽), 젠더 기반 (성)폭력 보도 체크리스트(39~40쪽),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42~43쪽), 디지털 성폭력 범죄보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47쪽), 스포츠 보도 체크리스트(75~76쪽),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87~90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꼭 읽어보고, 수시로 참고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거나 보고 있지만 지양해야 할 기사의 제목과 표현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재나 기사 작성 시에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하한선을 잡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는 ‘더 읽을거리’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독을 부탁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속해 있는 보도 부문에 한정하자면) 차장 데스크급 이상 보직자들입니다. 재교육이 쉽지 않은 기자직의 특성상 연차가 쌓일수록 과거의 부적절한 취재·보도 관행과 기사에 익숙해져 있고, 젠더·언어적 감수성이 젊은 기자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 2년째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직자들의 경우엔 성별도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기자들을 교육시키고, 최종 결과물인 기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연차 직원이나 보직자들에게 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칙은 단순합니다. 1.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사나 제작물이 반영하거나 전달하지는 않는지 2. 젠더 기반 폭력 보도의 경우 피해자의 문제 해결과 원상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아쉬운 점은 시간과 능력의 부족으로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방송뉴스나 영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진 점과, 방송 심의에서 벗어나 있는 유튜브나 OTT 등 뉴미디어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고, 다음 작업은 더 훌륭한 후배 기자·PD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QR



서울/보도 조효정 조합원

2023 MBC 노동절



MBC본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조합은 지난달 20일, MBC본부 15기 제2차 정기대의원 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15기 MBC본부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의원 회에서 조합은 올해 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1. '공영방송 MBC' 사수,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실현
2.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조합 조직력 강화
3. 조합을 통해 나아지는 삶, 조합원 권익 증진

대의원회에서는 이 같은 활동 방향에 따라 교섭쟁의비, 조직행사비 등이 예년보다 증액된 올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22예산		2022결산		2023예산	
	조합비	임금보전	조합비	임금보전	조합비	임금보전
1.기초 이월금	363,767,221	697,246,455	363,767,221	697,246,455	222,281,082	674,292,969
2.수익	조합비	1,250,000,000	0	1,320,506,410	0	1,300,000,000
	예금이자	300,000	3,000,000	480,945	5,906,301	5,000,000
	기타	0	0	0	0	0
	합계	1,250,300,000	3,000,000	1,320,987,355	5,906,301	1,305,000,000
3.비용	본부운영비	823,100,000	0	782,289,365	0	853,220,000
	지부운영비	454,500,000	0	480,184,129	0	472,680,000
	기타	0	270,000,000	200,000,000	28,859,787	180,000,000
	합계	1,277,600,000	270,000,000	1,462,473,494	28,859,787	1,325,900,000
4.순손익(=2-3)	-27,300,000	-267,000,000	-141,486,139	-22,953,486	-20,900,000	-175,000,000
기말 이월금(=1+4)	336,467,221	430,246,455	222,281,082	674,292,969	201,381,082	499,292,969

[서울지부] 조합원과 나뉘요~

한때는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필요없어진,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을 조합원 동료들에게 나눠 주세요.

1. 카톡방에 입장해주세요.
2. 나누실 물건을 운영자에게 1:1 채팅방으로 알려주세요.
3. 조합 운영자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물품을 게시합니다.
4. 받으실 분은 운영자에게 1:1 채팅방으로 신청해주세요.

(선착순이 원칙이나, 최근에 나눔 받으신 분들께는 양보를 요청드릴 수도 있어요.)

** 운영자가 하루 한 번 물품 공지할 때만 글이 올라오고
개별 거래는 1:1 채팅으로 진행하니 소음 걱정말고 함께해주세요!



신임 집행부 소개



조직국장 **최지호**
12년 입사 / 울산 보도



편제민실위간사 **하정민**
07년 입사 / 서울 편제